

□ 성명서 □

## 유업체의 성의 없는 협상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낙농육우 동지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민연합은 함께할 것이다 -

사료값 폭등과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낙농육우산업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낙농육우 동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농민 전체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농민연합은 끝까지 함께 투쟁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원유가 현실화를 외치며 시작한 낙농육우 동지들의 단식농성이 이제 7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목장 경영의 유지냐 포기냐의 기로에서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는 자신만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 아니며, 정부 당국과 유업체는 상생의 원칙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업체의 성의없는 협상태도로 인하여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농민연합은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매일유업 평택공장 앞 낙농육우협회 집회와 관련해서 '허위 집회 신고'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는 매일유업과 이를 모른 척 눈감아 주고 있는 평택경찰서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지금 낙농육우 동지들은 생명을 걸고 일터를 떠나 길거리로 나섰다. 더 이상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농가 집회 방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2008년 6월 23일

농민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4-H본부,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소속단체 가나다순)

□ 성명서 □

## 유가협 김시환 전무는 소비자가격 3,000원 황당발언 해명하라

- 농가 원유가 현실화 핑계로 유업체 폭리 스스로 인정한 꼴 -

23일 자정이 지나 방송된 KBS 2TV 생방송 시사투나잇에서 유가공협회 김시환 전무의 인터뷰를 접하고, 우리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김시환 전무는 인터뷰를 통해 농가들의 원유값을 올리면 소비자가격이 3,000원이 된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누가 우유를 사먹겠냐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댔다. 과연 유업체를 대표하여 원유가를 협상한다는 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원유가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20일 낙농진흥회 6차 소위원회에서 유업체는 리터당 58.4원(10%)의 인상을 마지노선이라며 제시하였고, 약 150원(25.7%)의 인상을 요구하는 농가와와의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유업체의 입장이 이렇진데, 협상 당사자의 소비자가격 3,000원 황당발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현재 유업체는 우유 소비자가격을 이미 지난 연말 100원씩 인상해 1,850원으로 올려놓고서, 그것도 모자라 농가들의 원유가 인상을 빌미로 하여 폭리를 취하겠다고 스스로가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료값 폭등 및 제반비용의 상승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원유가격을 현실화 시키자는 것인데, 공존공생의 관계에 있는 유업체는 고작 제품가격 인상으로 폭리나 취할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금일 오후 낙농진흥회 7차 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도대체 농가 원유가를 얼마나 올려주려고 소비자가격 3,000원 발언을 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협회 이승호 회장과 선종승 이사가 원유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벌써 8일째 단식에 접어들었고, 농가들은 유업체 공장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계속해서 농가들의 생존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인터뷰를 남발하는 등 장난질을 일삼는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그에 상응한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2008. 6. 24

한국낙농육우협회

□ 성명서 □

## 벼랑 끝 농가들을 등 떠밀면 끝장을 보게 될 것이다!

벌써 단식농성 투쟁 2주째다. 그러나 유업체는 여전히 묵묵부답,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는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전국의 낙농동지들은 지난 6.17대회에서 원유가 현실화 및 낙농희생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일로 벌써 10년째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유업체가 앞에서는 협상에 임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폭리나 취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의 의미는 없다. 더욱이 협상을 질질 끌면서 납유거부 마저도 불사하겠다는 농가들의 의지를 뒤에서 비웃고 있다면 이는 그야말로 큰 오산이다.

이미 농가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 그 동안 유업체가 보여준 협상태도는 실망감을 넘어 농가들을 분노케 만들었고, 이로 인해 전국의 농가들은 생존권을 걸고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가들이 줄도산 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라. 농가 없는 유업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진정성 있는 협상만이 미래 낙농산업을 담보할 수 있음이다.

이제 답은 분명하다. 낙농기반 유지와 우유재생산을 위한 농가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애써 외면한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인 유업체는 물론 정부당국도 예의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오늘의 경고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계속해서 농가들의 요구가 묵살된다면, 다음번에 어떤 사태가 발생할 지 선불리 예단하는 것조차 우(愚)가 될 것이며, 끝장을 보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

2008. 6. 30

한국낙농육우협회

□ 성명서 □

## 축산업 말살음모, 농협개혁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1. 농협중앙회의 농협개혁위원회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진정으로 농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빙자한 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중앙회장 권한 축소, 농협발전위원회 설치 등 농민단체의 요구는 빠진 채 대표적인 내용이 축산경제와 농협경제를 통합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이니 말이다.
2. 기본적으로 축산경제와 농협경제 통합문제는 지난 2000년 농축협 통합 정신과 전면 배치되는 사안이다. 당시 농협법상 축산경제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축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로 규정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 운운하며 축산경제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논리는 축산말살 음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3. 전체 농업에서 축산업 생산액 비중은 약 35% 수준으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성장을 축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합농협은 중앙회 축산관련 사업기능과 축산조합을 계속적으로 축소시켜 왔다. 오히려 축산업 비중이 확대되는 규모에 걸맞게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지는 못할망정 축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작태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4. 현재 농식품부도 조직개편을 통해 축산정책단을 별도로 두어 축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농협중앙회는 과연 모른단 말인가. 가뜩이나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고, 낙농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17일째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농협중앙회의 축산경제 통합 방침은 농협의 축산업 포기로 간주하며 이후 벌어지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농협중앙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며, 지금 즉시 개악만 추진하는 농협개혁위는 즉각 해체할 것을 천명한다.

2008년 7월 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